

Brilliant Ideas Episode #32: 올라퍼 엘리아슨

자연을 품고 대자연을 넘는 예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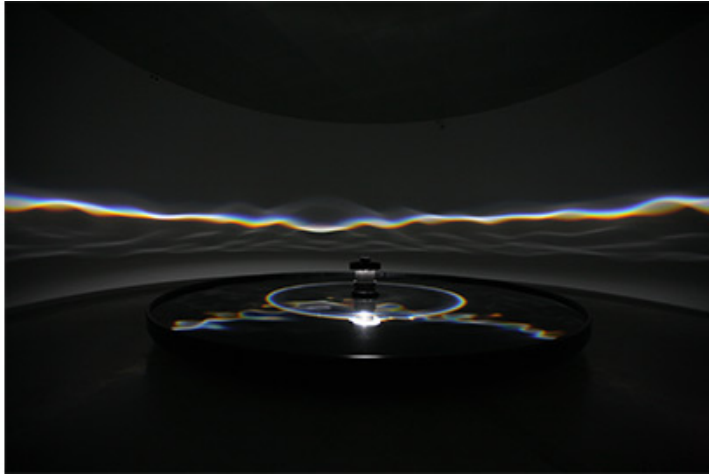
예술의 새 지평을 열다



태양과 폭포, 안개가 바로 올라퍼 엘리아슨(Olafur Eliasson)에게 영감을 선사합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아이슬란드를 오가며 광활한 자연을 접한 작가는 줄곧 대자연과 기술의 관계를 탐구하는 작품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각 미술에 기반하면서도 건축과 철학, 디자인 영역을 아우르는 그의 작품은 예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동시에 대중이 예술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자연을 섬세한 작품으로 연출해내는 올라퍼 엘리아슨을 블룸버그와 현대자동차가 마련한 Brilliant Ideas Episode 서른두 번째 이야기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의 언어로 현대미술을 말하다



한편 전시된 여덟 작품 중에서도 정원에 설치된 <폭포(Waterfall)>(2016)는 단연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난 2008년 <뉴욕시 폭포(The New York City Waterfalls)>라는 제목으로 도심 한복판에 비슷한 작품을 선보인 바 있는 그는 이 전시에서 더욱 웅장한 스케일로 정원을 수놓았습니다. 폭포는 높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의 곳에서 대지를 향해 수직으로 낙하합니다. 그가 만들어낸 인공이지만 햇빛, 바람의 세기와 방향 등 자연의 요소에 따라 시시각각 모습을 달리하는 폭포는 물이 지니는 대자연의 생명력을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이 전시에서 엘리아슨은 자신에게 가장 친숙한 조형언어인 빛과 물을 사용해 베르사유 궁전의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의미를 유지하는 동시에 현대미술과 어우러진 초자연적인 공간을 연출해냈습니다.

태양왕 루이 14세 시절의 영광이 그대로 느껴지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Chateau de Versailles)은 매년 전 세계 현대 미술가 중 한 명을 선정해 대규모 개인전을 개최합니다. 그리고 2016년 주인공으로 바로 올라퍼 엘리아슨을 선택했습니다. 엘리아슨은 궁전과 정원으로 나누는 건축 공간에 주목해 두 곳이 어우러지는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전시 준비 기간 동안 어딜 가든 베르사유 궁전의 도면을 들고 다니며 연구했을 만큼 그는 공간과 작품을 동시에 극대화시키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그런 그가 전시를 위해 선택한 소재는 '빛과 물'입니다. 그는 화려한 장식으로 호화로움을 뽐내는 궁전 내부에는 '빛'을 수십 개의 대규모 분수와 운하가 자리한 정원에는 '물'을 담은 작품을 재현했습니다. 그리고 궁전 내에서도 가장 화려한 거울의 방에는 작품 <당신의 일체감(Your sense of unity)>(2016)을 배치했습니다. 강렬한 LED 빛을 뿜어내는 커다란 원형 고리 여섯 개로 구성된 이 작품은 방안 벽면을 덮는 거울과 그가 추가로 설치한 두 개의 거울에 끝없이 빛을 반사시키며 마치 신기루 같은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관람객은 거울에 반복되는 빛과 공간, 그리고 본인들의 모습을 보며 궁전의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신비로운 경험을 했지요.



모두를 위한 예술



한편, 그를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2003년 영국 테이트 모던(Tate Modern)에서 선보인 '웨더 프로젝트(The weather project)'(2003)입니다. 광활한 터바인 홀(Turbine Hall)에 설치된 작품은 200여 개의 전구와 알루미늄 호일로 만들어져 마치 태양을 실내로 옮겨놓은 듯했습니다. 설치미술은 사람들에게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놀랍게도 관람객들은 이 작품과 하나가 되어 인공태양 밑에서 담소를 나누고 낮잠을 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이 작품을 예술로 받아들이고 몸소 경험하는 모습은 작품의 일부가 됐고, 이는 지금껏 전시공간 자체를 새로운 예술의 영역으로 바꾸는 관점을 제시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자연'은 엘리아슨의 작품 어느 곳이나 녹아있는 소재입니다. 예술이란 '타인의 생각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믿는 그는 언어와 문화를 넘어 모두가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소재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가 공감하며 경험할 수 있는 '자연'을 작품의 소재로 사용함으로써 사람의 경험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곁에 있기에 오히려 지각하지 못하는 자연을, 작가는 작품으로 끌어내 예술을 덧입힙니다. 과학의 힘을 빌려 자연의 현상을 증폭시키거나 모방을 넘어서는 초현실적 유사자연을 창조해내는 그의 작품은 누구나 이해하고 감동할 만큼 뚜렷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의 예술은 전시장 밖에서도 독보적입니다. 1998년 아이슬란드, 도쿄, 스톡홀름 등지에서 실행한 '녹색 강(Green River)' 프로젝트는 환경에 무해한 녹색 염료를 강물 상류에 몰래 풀어 강물을 온통 녹색으로 바꾼 작품입니다. 갑자기 녹색으로 변해버린 강물에 프로젝트를 실행했던 도시에서는 엄청난 토론과 반향이 일었고, 인간의 자연에 대한 인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자연이라는 소재를 다루는 엘리아슨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는 '예술이란 심오한 것'이라는 인식을 깨고 누구나 자신만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자 지금도 끊임없이 탐구 중입니다. ■ with ARTINPOST



<360° room for all colours> 2002

Stainless steel, wood, fluorescent lights, colour filter foil (red, green, blue), projection foil, control unit 320cm Ø815cm Th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2008 Photo: Studio Olafur Eliasson Courtesy of Jarla Partilager, private collection © Olafur Eliasson

Profile



올라퍼 엘리아슨(Olafur Eliasson)을 예술로 이끈 건 움직임, 신체적 경험 그리고 감정에서 비롯되는 흥미입니다. 예술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는 터닝포인트’라 여기는 엘리아슨은 사회와 예술의 관계를 넓은 시야로 탐구합니다. 조각, 회화, 사진, 필름, 설치 장르를 망라하는 작업은 그의 의도에 맞춰 미술관, 갤러리뿐 아니라 공공장소, 건축 프로젝트 등 도시에 선보여 사회-예술 간 관계를 형성합니다.

엘리아슨은 1967년 태어나 덴마크왕립미술아카데미(Royal Danish Academy of Fine Arts)에서 공부했습니다. 1995년 베를린으로 이주한 그는 스튜디오 올라퍼 엘리아슨(Studio Olafur Eliasson)을 설립했고, 오늘날 이곳은 테크니션, 건축가, 아키비스트, 미술사가 등 약 90여 명의 스텝이 움직이는 대규모 스튜디오로 성장했습니다. 1990년부터, ‘제50회 베니스비엔날레(50th Venice Biennale)’, 테이트 모던 터바인 홀(Tate Modern’s Turbine Hall, London), 뉴욕 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MoMA)에서 작품을 소개한 그는 최근 루이비통재단(Fondation Louis Vuitton)에서 대규모 개인전을 가졌습니다.